

고용 · 산업위기지역 극복책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전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서 요구... 김승일 행정부지사 지역경제 관련 일자리 중심 사업위주 편성 6일 의회 제출

전라북도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도민제안사업 논의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9일 전북도민, 재정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등 주민참여예산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군산 고용·산업위기 지역 극복을 위한 대책을 최대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지역경제와 관련한 일자리 중심의 시급한 사업위주

로 편성하여 7월 6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에 대해 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도 주문했다.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도민제안 사업은 지난 5월 공모결과 총33건에 88억원의 사업이 접수되었다. 제안된 사업은 도 관련 부서에서 6~7월에 사업 타당성 및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고 도정 핵심정책과 연계하여 보완 수정한다. 이후 9월에 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민제안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10월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이 외에도 도에서는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예산 편성 전 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개정과,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위한「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 29일 공포·시행했다. 또한 전북도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군산지역 GM 군산공장 폐쇄 실업급여 신청자 급증

지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군산지역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48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27명에 비해 954명(24.3%) 증가했다. 이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244억 원으로 전년 209억 원 대비 34억 원(16.2%)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자동차업종 고용조정을 비롯해 이달(6월) 군산공장 희망퇴직자 1100여 명의 퇴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 이한수 군산지청장은 "고용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TF팀 구성과 단계별 고용지원 전담팀 및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실직자의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과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장 지원 등 신속한 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교통편의 · 선거구민 우비 제공 혐의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00군수선거 후보자 A씨의 유세장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선거구민 B씨와 00군수선거 후보자 C씨의 연설·대담 장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우비를 제공한 후원회장 D씨와 자원봉사자 E씨 및 F씨를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9일 무주군선거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 B씨는 지난 4일 00군수선거 후보자 A씨의 선거유세장까지 25여명의 주민들에게 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후보자 A씨의 연설을 들게한 혐의가 있으며, 00군수선거 후보자 C씨의 후원회장인 D씨와 자원봉사자 E씨 및 F씨는 공모하여 후보자 C씨의 연설·대담 장소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총 88만원 상당의 우비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와 관계 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행위는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농진청, 농촌 자원 사업 아이디어 발굴 토론회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은 지난 28일 새로운 농촌 자원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농촌 자원 사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토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농촌자원포럼과 함께 농진청 오디오에서 진행한 이번 포럼에서는 농진청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오는 7월 1일 창사 41주년 맞아 기념행사를 29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조만승 LX사장 직무대행,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박희상 비상임이사, 심동열 비상임이사, 송영남 비상임이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최고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뿌리 내릴 것”

LX공사, 창사 41주년 기념식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7월 1일 창사 4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29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과 LX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LX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 획득, 국민 중심 국토정보 서비스를 통해 혁신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식에서는 서울지역본부와 경영대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핵심사업 부문, 경기 지역본부가 미래성장 부문, 충북 지역본부가 고객부문 대상을 받았다.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LX는 정부의 역점과제이기도 한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는 모범 공공기관"이라며 "국민

기업 · 기관 협력체계 형성 애로사항 청취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중기 대표자 협의회 구성 첫 회의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9일 전북도 중소기업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중소기업 대표자와 도 관계공무원 40여명이 함께 자리했으며, 먼저 전라북도 중소기업 대표자 협의회 추진방향 설명 및 회장단(회장 1명, 부회장 3명)을 선출하고, 이후 도내 분야별 중소기업들의 기업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기업입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 중소기업 대표자 협의회는 그간 각 산업별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개별 소통창구를 총괄하는 원스톱 애로해소 소통창구로, 도-기업-유관 기관과 밀착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정기적으로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 제시, 기업인이 주체가 되어 신규 기업지원분야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업관련 정책과 연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비용 분야 지원 확대 및 일자리 mismatch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기업여건을 감안한 각종 애로사항을 공동 토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협의회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 실현되어 전라북도 중소기업 대표자 협의회가 기업애로해소의 정기적

공식적 소통창구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 재난관리 평가 2년 연속 우수
전북도는 정부의 '2018년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는 재난 위기 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선한 것은 물론 재난관리 프로세스와 안전관리체계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성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박선양(1986. 7. 12.생 2018. 3. 1.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성화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체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년단550 상속한정승인 판사 정성화
▶ 피상속인: 망 박선양(1986. 7. 12.생 2018. 3. 1. 사망)
최후주소: 전북 완산구 모악로 4685, 103동 1402호(명화동2가, 우미아파트)
▶ 공고인: 박철원
▶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18. 5. 30.
▶ 공고기간: 2018. 7. 2. ~ 2018. 9. 1.
▶ 주소: (청구대리인 김준영의 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1길9 (덕진동 1가, 스카이빌루빌) 101호 한울법무사사무소 010-3703-781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